

서울불교대학원대학 9월 개교

교육부 인가, 석·박사양성...포교사 등 전문인력 배출

불교계 처음으로 불교대학원대학교가 문을 연다.

불교인양원(이사장 덕해)은 지난 3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설립인가를 받고, 오는 9월 1일 개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립되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학부과정 없이 석·박사만 양성하는 단선 전문대학원으로, 앞으로 불교적 마인드를 갖춘 상담심리 전문가, 사회복지사, 포교사 등의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

불교인양원은 현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38-2번지에 연면적 530여 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학사를 마련해 놓았으며, 대학 행정실, 강당, 강의실, 교수 연구실, 체육실, 도서관

불교학 등 3학과 20일부터 원서접수

재학생 장학금·우수생 해외유학

불교인양원 납골시설 영각당 개원

등을 갖추고 있다. 불교인양원은 앞으로 1회 졸업생이 배출 될 2004년에 박사과정을 설치하고, 서울 진관외동에 대지 3천평, 건평 1천 평의 새 캠퍼스를 마련해 이전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이번 달 20일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가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불교학,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3개 학과에 총 50명을 모집하며, 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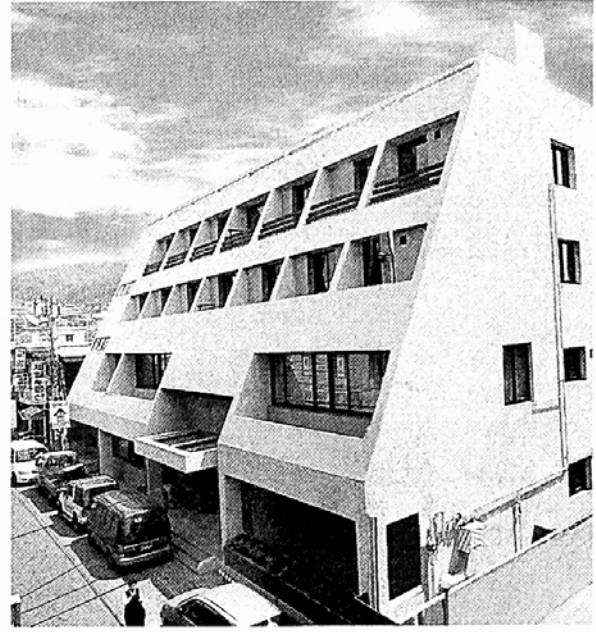
대부분에게 장학금 지원, 우수 학생 해외유학 파견, 연구 성과를 출판 지원 등 교수·학생의 연구활동지원은 물론, 임대주택 제공 등 복지혜택도 주는 등 최고수준의 연구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불교인양원은 4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납골시설인 영각당을 개원했다. 대지 1천 평, 건평 5백여 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

모의 현대식 원형 건물로 건립된 영각당은 납골 1만2천기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으며, 총 공사비만 40억원이 들어갔다. 2000년 8월 인양시로부터 납골당 설치 허가를 받고, 2년여 간의 공사 기간을 걸쳐 준공된 영각당은 이 지역 납골 수요를 소화하는 것은 물론,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를 선도할 전망이다.

불교인양원은 영각당을 건립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취지를 살린다는 방침아래 시설 운영 수익금 전액을 사회복지 및 교육 사업 등에 회향할 계획이다.

지난 89년 학교법인 보문학원을 인수, 대전 보문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2000년 안양시 노인복지센터



◇올 9월 1일 개교할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학사전경.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불교인양원은 이번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고 영각당을 개원함에 따라 교

성우원서 사은행사

부산불교자비원·후원회

스승의 날을 맞아 부산 성우원(원장 김창숙)에서 뜻깊은 사은행사가 열렸다.

20년전부터 성우원을 방문, 봉사활동과 후원을 지속해온 부산불교자비원(원장 정각)과 부산불교자비원 후원회(회장 장일선) 회원들이 10일 연세대학교에서 성우원 선생님들을 위한 조촐한 자리를 마련한 것. 부모없는 장애아들을 위한 복지시설인 성우원에는 40여명의 교사들이 아이들의 지도를 맡아 부모와 형제의 정을 대신하는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날 성우원 김창숙 원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니 오히려 감사하다"며 "앞으로 모든 직원들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종로일대 전통문화지구 보존 필요

조계사 역사적 가치 대중에 알려야

조계사 포럼 개최

최근 도량을 정비하고 일주문 불사 계획을 진행하는 등 시민문화공간이자 종로일대의 역사문화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조계사가 이와 관련한 주제의 포럼을 열어 관심을 끌었다. 조계사(주지 지홍)는 7일 소설법전에서 송인호(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상구(경기도 교수), 강임산(겨레문화답사연합 대표)씨 등이 포럼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사 인근지역의 역사·지리적 특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나각순씨(서울시사편찬위원회 전임)는 조계사가 나라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된 배경과 역사성을 설명한

뒤 "조계사의 모든 활동은 민족문화를 창출하고 국민정신을 계도해 국민과 함께 어우러졌던 불교의 정통성을 계승·발전시키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임산씨는 질의 및 토론에서 "조계사가 전통문화지구인 종로일대의 역사·지리적 핵심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료보강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을 위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조계사보나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해 '종로와 조계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대중에게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은 대중전 앞 24층 주상복합빌딩 건립 등 최근 조계사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층빌딩 건립 논란과 관련해 "종로와 조계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홍스님은 "이 지역은 서울 역사문화의 중심축"이라고 전제하고 "조계사 일대는 조계사뿐만 아니라 경복궁-조계사-인사동-북촌-광경궁으로 이어지는 전통문화벨트로서 마땅히 보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8일 당진 안국사에서 열린 경로잔치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어르신 공경하자" 경로잔치

법상종 총남교구, 18개 마을서 400명 참석

대한불교법상종 총남교구(원장 원상·안국사 주지)는 불교유적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높이고 어버이날 경로를 전하기 위하여 총남당진군 안국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법상종 사회부장 진성스

님과 김남성 당진군수를 비롯해 정미면 18개 마을 노인 4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안국사는 지난해 12월 안국사지에 대한 정밀 지표 조사와 학술조사를 마치고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다. 여수령 기자

이웃위한 희망의등 밝히기

월드컵기간까지 2002개

함양삼일연합회(회장 지일, 백운암 주지)가 함양군청(군수 정용규)과 함께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본사가 공동 주최하는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밝히기'에 나섰다.

함양불교사암연합회는 9일 군청앞에서 '국민태안, 월드컵성공기원, 군민화합을 위한 자비의 등을 달아줍시다'라는 주제로 점등식을 봉행하고, 당일 모연금을 군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전달했다. 함양삼일련은 이후 행사기간 중 등 접수비 및 모연금도 전액 불우이웃에게 회향키로 했다. (055)963-2471 김재경 기자

'천성산 사랑하는 모임' 발족

월1회 현지답사·생태연구 등 '산' 살리기

임도개설, 고속철 통과로 위협받고 있는 천성산. 그 천성산의 가치를 생태적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할 모임이 만들어진다.

10일 결성 준비모임을 가진 '천성산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지역내의 환경전문 교수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천성산의 생태적 가치를 연구, 천성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다. 사무실로 사용될 내원사 입구의 토담집에서 열린 준비모임에는 내원사 지율스님, 이병인 밀양대 교수, 정우규 박사, 울산생명의 숲 가꾸기, 마산천원 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했다.

'천성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월1회 천성산 답사, 생태문제 연구 등을 통한 천성산 알리기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천미희 기자

신계사 복원·단청지원 추진

중단협·조불련 남북교류창구 단일화

남북불교교류 창구가 남북 한국불교중단협의회와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으로 단일화된다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중단협대표단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불교교류 창구를 중단협과 조불련으로 단일화하여 동포애적인 참 보시행의 관점에서 대북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 창구단일화의 의미에 대해 양산스님은 "창구를 단일화한다는 의미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남북불교교류를 할

경우 중단협을 통해 조불련 접촉과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사찰 단청불사와 신계사 복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9월 신계사 탐 보수시 양측이 만나 신계사 복원문제와 단청지원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불교대표단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적인 존중 및 실천 △평화통일 노력 다짐 △상호교류 협력 강화 △부처님 오신날, 6.15, 8.15 남북동시법회 추진 및 공동발원문, 축원 발표 등에 합의했다.

김원우 기자

극락불토 수미산 영가 천도제 참가단 모집

철마년이란?

12년에 한번 돌아오는 업장소멸의 해로 올해가 철마년(鐵馬年)입니다. 이 해에 수미산에서 수행을 하면 업장이 소멸됨과 함께 12년의 공덕을 얻는다 하여 지금 수미산은 대만, 일본, 태국등 세계 각국에서 온 불교신자들로 붐빕니다.



행사 일정 (본 행사는 수미산 행사 외 티벳, 네팔 순례를 겸합니다)

- 5월 28일 오후 7시 경 인천공항 집결-중국 성도 도착
- 5월 29일 성도 - 티벳, 라싸 포탈라, 칠방사 순례
- 5월 30일 라싸, 장체, 사가체 굽다, 백담사 순례
- 5월 31일 티쉬르포 순례, 라체로 이동
- 6월 1일 라체, 사가순례
- 6월 2일 사가 수미산 입구 파양 순례
- 6월 3일 수미산 순례
- 6월 4일 수미산 영가천도제, 성호 마나사르바 순례
- 6월 5일 수미산 개별 자유 수행 순례
- 6월 6일 사가, 징무 도착
- 6월 7일 징무, 코다리사원 순례, 네팔 카트만두
- 6월 8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네팔 몽키템플, 보다나트, 박달문 순례
- 6월 9일 카트만두, 상해 거쳐 아시아나 항공으로 오전 11시경 인천 도착(12박 13일)

- 참가대상: 본 행사는 스님 외 숙인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스님이 인솔하는 숙인은 가능합니다)
- 참가비용: 275만원(현지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 참가문의: (02)722-8121~5 팩스:(02)734-3565 (자세한 내용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접수마감: 5월 18일(토요일)

*본 행사에 참가하기 어려우신 스님들께서는 하안거 직후의 2차행사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최·철마년(鐵馬年) 맞이 수미산 영가천도제 준비위원회

- ▣ 천도제집전·대운사(大雲寺)주지 지홍스님 및 순례참여 주지사님 동참 (영가천도를 원하시는 스님들은 영가를 준비하신 후 동참하시면 됩니다)
- ▣ 주관·천도제 준비위원회, 세계일류여행사(문화관광부 주최 한국어행사품전 '금상' 수상, 2001년 티벳 승출 1위 여행사), 中國城都여행사, 티벳과학기술여행사, 네팔카트만두에코여행사